# 아파트 자전거 골머리

## 건강 열풍 집집마다 구입…계단에 방치 통행 불편

## 미관 해치고 앞집과 시비도…주차 공간 마련 절실

건강 열풍에 유가 급등까지 겹쳐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광주지역 아파트마다 자전거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관 장소 부족으로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방치됨은 물론 '바이킹'이 레저로 인식되면서 상당수가 고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가 많아 자전거를 집 앞 계단에 놓아두는 사례가 태반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비상계단이 화재 등 유사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여러 명인 세대는 자전거를 두 세대나 계단에 올려놓는 곳도 있어 앞집과의 말다툼 소지가 되기도 한다.

광주시 북구 A아파트는 며칠 전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 예산 200만원을 들여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 아파트 전체 자전거 대수는 200대가 넘지만 현재 확보된 자전거 주차장은 각 동에 한 곳(12대 보관)씩 5곳 정도만 설치, 100대가 넘는 자전거는 아파트 이곳 저곳에 널려 있는 형편이다.

서구 농성동 B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자전거 보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계단에 자전거가 방치되면서 통행 불편은 물론 아파트 미관까지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에서는 비상구 폐쇄 행위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까지 내걸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 보관 장소를 찾지 못한 일부 입주민들은 고육지책으로, 또는 고가제품이라 일부러 비상계단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 입주민 강모(65)씨는 "자전거 두 세대를 한꺼번에 비상계단에 세워두는 입주민들도 있다"며 "평소 통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불이 나면 오죽하겠느냐. 자전거 때문에 이웃 간 마찰을 빚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부인이 세워놓고 간 자전거도 골칫거리다. 남구 봉선동 C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전체 입주민들이 가진 자전거에 동과 호수를 표기하고 경비실에 신고토록 공지했다.

해당 기간까지 동, 호수 표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내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전거 보관 장소가 부족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4일 광주시 남구 한 아파트 1층 계단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세워 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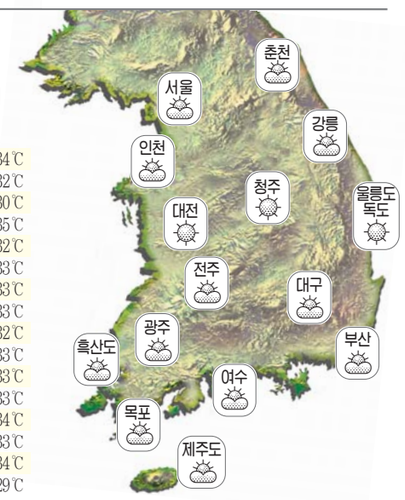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해뜸 05시 44분 해짐 19시 33분 달뜸 11시 43분 달짐 22시 41분

### '폭염'주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무덥겠다.

| | | |
|---|---|---|
| 광 주 | 구름많음 | 24/34℃ |
| 목 포 | 구름많음 | 24/32℃ |
| 여 수 | 구름많음 | 24/30℃ |
| 나 주 | 구름많음 | 24/35℃ |
| 완 도 | 구름많음 | 24/32℃ |
| 구 례 | 구름많음 | 23/33℃ |
| 강 진 | 구름많음 | 24/33℃ |
| 해 남 | 구름많음 | 24/33℃ |
| 장 흥 | 구름많음 | 24/32℃ |
| 순 천 | 구름많음 | 24/33℃ |
| 영 광 | 구름많음 | 24/33℃ |
| 진 도 | 구름많음 | 24/33℃ |
| 전 주 | 구름많음 | 24/34℃ |
| 군 산 | 구름많음 | 24/33℃ |
| 남 원 | 구름많음 | 22/34℃ |
| 흑산도 | 구름많음 | 23/29℃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동~동 | 1.5~2.5m |
| 먼바다 | 북동~동 | 2.0~3.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동~동 | 2.0~3.0m |
| 먼바다 | 북동~동 | 2.0~4.0m |

| 자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불쾌지수 |
|---|---|---|
| 매우높음 | 경고 | 매우높음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동~동 | 2.0~3.0m |
| 먼바다 | 북동~동 | 2.0~4.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동~동 | 2.0~3.0m |
| 먼바다 | 북동~동 | 3.0~4.0m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05:57 18:35 | 11:06 23:33 |
| 여수 | 00:24 13:00 | 06:28 18:59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6(토) | 7(일) | 8(월) | 9(화) | 10(수) | 11(목)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25/32 | 25/31 | 25/31 | 25/33 | 24/33 | 24/32 |

## 호남 태풍 영향권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북은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여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5일은 폭염이 지속되지만 태풍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북에는 6일부터 7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리겠다"고 4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6일 5~40㎜, 7일 10~40㎜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10월 영산강 승촌보·유원지 완공

# 치안수요 대비 파출소 신설 필요

## 하루 방문객 3000명·유람선 운행땐 1만명까지 예상

오는 10월 초 영산강 승촌보와 주변 공사가 완공되면 66만㎡(20만평)의 대규모 공원이 선보이게 된다.

공원 이용객과 관광객 증가 등 치안수요 급증에 대비해 전담 파출소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초 영산강 6공구 승촌보(총 길이 568m·수문 4문·조형물 5개) 조성공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인근 지역인 광주시 남구 승촌동에 66만1157㎡의 영산강 유원지가 조성된다.

이 영산강 유원지에는 명품 숲·생태 습지 등 친환경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지역민 이용이 많은 다목적 운동장과 승촌보 자전거도로(38㎞) 등이 들어서며, 50t·100t급 황토돛배 유람선도 운행할 예정이다.

광주와 나주·함평지역 가운데 위치한 영산강 유원지가 개장될 경우, 각 학교 생태체험·자전거 동호회·외지인들의 발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하루 평균 예상 방문객 수가 3000명, 유람선 운행 땐 1만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 관할 파출소는 남부경찰서 대촌 파출소(순찰차 1대, 인력 2명)로 영산강 유원지와의 거리가 무려 13㎞로 출동시간만 25분이 넘게 소요된다.

강·절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력도 2명 밖에 안돼 대촌지역 사건 발생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승촌보 공사장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소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제 때 출동이 불가능하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산강 유원지가 개장되면 강력범죄·절도는 물론 교통사고 등 치안수요가 총체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수변 유원지 특성상 순찰정·잠수장비도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파출소가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전남 공모제 교장 100명 넘었다

## 도교육청 27명 신규 임용

전남도교육청의 공모제 교장이 100명을 넘어섰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자로 임용될 초·중등 공모 교장 임용 예정자 27명의 명단을 4일 발표했다. 이번 교장 공모 대상학교는 여천초등학교를 비롯해 초등 16곳, 담양중 등 중등 11개교 등 모두 27개교다.

이로써 도교육청이 지난 1997년부터 도입·시행해온 공모제 교장수는 기존 74명에서 101명이 됐다.

한편, 광주의 9월 임용예정인 공모교장은 초등 6개교, 중등 6개교 등 모두 12명이다.

교장 공모제는 기존의 연공서열식 인사구조를 깨 학교 현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다음은 공모 교장 임용예정자 명단

▲초등=여천초 정영희·백초초 신경욱·상암초 김재원·화정초 최양규·나주초 서춘기·금성초 이영재·구례중앙초 이석주·동복초 김성희·득량남초 임삼택·작천초 박정수·도암초 염시일·송지초 김해운·삼향북초 김경호·신광초 최영자·백수서초 배동렬·분향초 최경주(이상 16명)

▲중등=담양중 김성희·고흥점암중 김을식·포두중 허성균·장흥유치중 이영송·영암낭주중 양경주·영광염산중 김길수·장흥고 하상규·광양백운고 조창영·대덕종고 정문화·광양실고 김종남·화순실고 곽승구( 이상 11명)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전남 거주 교직원에 승진가산점

## 내년부터 최고 0.5점

내년부터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에게 최고 0.50점의 승진가산점이 주어진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거주 교직원, 좋은 수업 실천연구실적, 학급담임 경력 조항을 신설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선택 가산점 산정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신설된 전남지역 거주자 경력은 본인 단독거주의 경우 1년당 0.02점, 전가족 거주는 매 1년마다 0.03점이 가산돼 최고 0.5점까지 받는다.

'좋은 수업실천 연구 실적'의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들에게 해당되며 수업을 공개하면 1회 실적당 0.04점을, 좋은 수업선도교사, 특별연구교사 등의 공개수업에는 0.05점을 부여한다. 이는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신설 규정이다.

중등 학급 담임 경력의 경우 1개월마다 0.002점을 받는 등 최고 0.2점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또 농어촌 소규모 학교 근무경력자의 경우 기존 0.85점에서 1.00점으로 평정점수를 올렸다. 농어촌 지역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반면, 국가기준 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점수를 기존 0.50점에서 0.30점으로 낮췄고,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점수를 4.00에서 3.00으로 하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